

중국 조선족인구와 분포 문제에 대한 연구

김 병 호

1. 조선족의 인구구성 및 그 특징

2. 조선족의 분포 및 그 특징

중국 조선족의 유래는 조선인으로서 주요하게는 19세기 중엽이후의 몇 십년간에 조선반도로부터 중국내륙 동북지구에 이주하여 정착·번성하면서 중국땅에 뿌리를 내리고 중국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되었는데 지금 약 200만명이 된다. 본문은 중국 조선족의 인구구성, 민족분포 및 그 특징, 그리고 그것들이 조선족 자체의 발전에 대한 영향등의 문제에 대하여 간략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1. 조선족의 인구구성 및 그 특징

민족의 인구구성이란 주로 민족인구의 수량적 구성, 성별적 구성, 연령적구성, 문화적구성, 사회적구성과 직업적구성을 가리킨다.

민족의 인구구성은 민족의 구조(民族結構), 민족의 소질(民族素質)을 결정짓는 중요한 내용인 동시에 그것들의 반영과 체현이기도 하다. 민족의 인구구성의 변화와 합리화는 그 인구의 수(數)와 질(質) 및 그것들 사

이의 상호관계의 합비례화(合比例化)를 나타내며 그 민족의 구조, 민족소질의 완전과 제고(提高)의 징표(徵表)로 되며 따라서 그 민족의 발전은 비교적 유리한 조건과 일정한 조력(助堆力)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시(預示)도 된다.

민족의 인구구성은 각 민족의 역사발전, 역사전통, 경제생활, 문화생활 그리고 이미 경유하고 지금 처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에 따라 제각기 자 자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조선족은 그 자체의 독특한 역사적 발전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의 현재의 정치, 경제, 문화발전 그리고 민족적심리(心理) 등 방면에서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인구구성에서도 그 자체로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족인구의 수량구성(數量構成)

지금 조선족의 인구수량은 200만명에 달하리라고 짐작된다. 중국에서의 3차례의 전면적인 전국인구조사에 근거하면 조선족의 인구수는 1953년은 1,120,405명으로 전국 총인구의 0.193%를 점하고 1964년은 1,339,567명으로 전국 총인구의 0.185%를 점하며 1982년은 1,765,204명으로 전국 총인구의 0.175%를 점하고 인구수가 중국 56개 민족가운데서 제12번째에 놓인다.

조선족은 길림성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소수민족으로서 전 성 소수민족 총인구의 60.34%를 점하며 흑룡강성에서의 조선족인구수는 소수민족 가운데서 두번째 위치에 놓이는것으로서 전 성 소수민족 총인구의 26.74%를 점하며 료녕성에서의 조선족인구수는 소수민족가운데서 네번째 위치에 놓이는 것으로서 전 성 소수민족 총인구의 6.81%를 점한다. 조선족 인구가 이 3성의 총인구 가운데서 일정한 비례를 점하고 있다(도표 1을 보라).

조선족인구는 새 중국이 건립된후의 몇십년사이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

왔는 바 1953년에 비하여 1982년까지 57.48%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 증가 속도는 전국 및 소수민족 인구의 평균증가속도 보다 낮은것이며(도표 2를 보라) 1964-1982년까지는 인구증가가 제일 적은 민족인 것이며 1953-1982년까지는 인구증가가 느린 2개의 100만이상 인구를가진 민족중의 한 개 민족이다.

근 40년간의 조선족인구수량의 변화는 일정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① 조선족인구의 증가는 비교적 느린것으로서 1953년부터 1982년까지 해마다 평균 2.05%씩 증가되었다. 이것은 전국과 소수민족의 인구가 해마다 평균

〈표 1〉 동북3성 총인구가운데서의 조선족인구의 비례

년 도	항 목	길림성	흑룡강성	랴오닝성
1953년	총 인구	1,129,007,3	1,189,703,9	2,038,645,8
	조선족 인구및	756,026	231,510	132,869
	점한%	6.69%	1.95%	0.65%
1964년	총 인구	1,566,866,3	3,013,277,1	2,694,620,0
	조선족 인구및	866,627	307,594	146,513
	점한%	5.53%	1.53%	0.54%
1982년	총 인구	2,256,002,4	3,266,551,2	3,572,169,3
	조선족 인구및	1,104,074	431,644	198,252
	점한%	4.89%	1.32%	0.56%

자료 : 중국의 제1, 2, 3차 전국인구 조사자료에 의해 작성.

〈표 2〉 조선족과 전국, 소수민족의 인구증가 비교

항 목	1964년-1982년	1953년-1982년
전국인구의 평균증가수(%)	42.70%	71.42%
소수민족인구의 평균증가수(%)	68.40%	89.38%
조선족인구의 평균증가수(%)	30.75%	57.48%

자료 : 중국의 제2, 3차 전국인구조사 자료에 의해 작성.

2.55%, 3.19%씩 증가된 것 보다 각각 0.5, 1.14 백분수(百分点)가 낮다.

② 조선족인구의 절대적 수량이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지만 일부 주된 지역의 조선족인구의 절대적수량은 줄어든 정황이 나타났었다. 이를테면 조선족이 제일 집중되어 있는 연변조선족자치주는 1950년부터 1964년까지의 15년간에 조선족인구의 절대적수량이 5차례가 줄어들었다(1950, 1952, 1958, 1959, 1964).

③ 조선족인구의 수량은 동북3성 및 전국 총인구, 전국 소수민족 총인구 가운데서의 상대적 비례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도표 1을 참고로 봄과 아울러 도표 3을 보라)

〈표 3〉 전국총인구, 소수민족 총인구 가운데서의 조선족인구의 비례

항 목	1953년	1964년	1982년
전국 총인구중에서의 조선족인구의 비례(%)	0.193%	0.185%	0.176%
소수민족 총인구중에서의 조선족인구의 비례(%)	3.009%	3.348%	2.625%

자료 : <<분발하여 전진하는 40년>>의 자료에 의해 작성.

④ 근 40년이래 연변지구에서의 조선족인구의 상대적 비례는 전반적으로 보면 줄어들었는데 1949년에 비하여 1988년은 63.36%로부터 40.70%로 줄어들었고 백분수(百分点)가 22.66감소되었으며 해마다 평균 0.58%가 감소되었다. 특히 1963년부터 시작하여 조선족인구가 전연변인구의 반수를 차지하던 상태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인구의 상대적 비례가 줄어드는 정황은 1980년후에 잠시 정지되었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의 8년사이에 그 비례는 높았다낮았다(두번 높아졌다 두번 낮아졌다)하면서 어느정도 높아졌으며(1981년 40.51%—1988년 40.70%) 백분수가 0.18증가되었고 6년동안에 조선족인구의 절대수가 60,506명 증가되었으니 잦은 시기의 연변 한족(漢族)인구의 증가수와 맞먹으며 해마다 평균 1만명씩 증가되었다. 1988년을 1982년과 비하여 볼때 조선족

인구는 8.017% 증가되었고 5.632%인 한족, 7.028%인 전국의 평균수에 비하여 각각 백분수가 2.385, 0.989높으며 조선족인구의 상대적비례는 1978년도의 수준으로 되올라갔다(도표 4를 보라).

〈표 4〉 1977-1988년 연변조선족인구의 상대적비례도표

년 도	총 인 구	조선족인구	점한비례%	비례의 증(+) 감(-)
1977	1,728,033	715,937	41.43	
1978	1,756,938	714,796	40.68	-0.75
1979	1,784,098	725,565	40.66	-0.02
1980	1,813,791	733,028	40.41	-0.25
1981	1,840,982	745,828	40.51	+0.10
1982	1,871,512	754,567	40.31	-0.20
1983	1,891,965	766,886	40.53	+0.22
1984	1,912,430	775,108	40.53	±0
1985	1,927,842	781,354	40.529	-0.001
1986	1,953,181	795,547	40.73	+0.20
1987	1,978,271	807,305	40.80	+0.07
1988	2,003,043	815,212	40.698	-0.10

자료 : 중국의 제1, 2, 3차 전국인구 조사자료에 의해 작성.

필자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위 도표에서 제시된 근 8년사이에 조선족 인구의 상대적 비례가 기복, 승강하고 다시 올라간 현상이 아마 일종의 추세를 예시하고 있을 것이다. 그 발전의 궤적(軌迹), 원인 및 그에 의한 영향과 결과를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조선족인구의 수량구성면에서의 상술한 특징가운데서 인구의 발전이 느리고 일부 지방의 인구의 절대수가 줄어들게 된것은 주로 조선족인구의 비자연적사망(전쟁과정에서 희생된것 등)자수량이 많은데, 게다가 산악 제한정책을 실시하여 인구의 출생률이 높지 않고 자연적 증가률이 낮음으로 하여 조성되었다. 그리고 일부 시기의 인구의 기계적변동도 역시 하나

의 원인이 된다. 자연적 증가율면에서 1981년의 조선족출생률은 19.24% 인바 20.90%인 전국의 출생률보다 천분수가 1.67 낮다. 조선족여성의 생육일은 67.99%인바 82.36%인 전국의 평균수준보다 천분수가 14.37 낮다. 자연증가율은 15%이하로서 전국의 평균수준보다 낮으며 1964-1982년사이의 조선족인구의 연평균증가속도는 1.5%이며 한국의 연평균증가속도보다 0.6 백분수가 느리다. 일부 지역, 이를 테면 연변 조선족인구의 상대적 비례가 하강된 것은 조선족자체의 상술한 원인을 제외하고 한족인구의 자연적증가율이 높으며(이를 테면 1980년 연변 한족의 자연적증가율은 13.46%이고 조선족은 10.46%이다) 많은 한족인구가 연변에 이주한탓으로 조성되었다(1959-1979년까지 대개 10여만명이 이주했음).

조선족인구의 성별구성(性別構成)

성별비례는 인류사회 생존균형에서의 중요한 내용이며 일정한 성별비례를 유지하는 것은 민족의 정상적 번성과 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이며 남녀성별구성에서 합리한 비례를 가져오는 것은 사회의 발전과민족의 각 방면의 발전에 대하여 꺾임적반영(折射反映)을 주게 된다. 중국 인구의 성별비례는 줄곧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조선족인구의 성별비례도 50년대는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1964년에 제2차 전면적인 인구조사를 할 때도 비록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많았지만 그 차이가 아주 적었다. 그후 18년을 지나 1982년에 제3차 전면적인 인구조사를 할 때 성별비례는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며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지고 그 비례가 100 : 98을 좀 넘게 되었다. 그러나 1964년에 남성이 여성보다 많을 때이건 아니면 1982년에 여성이 남성보다 많을 때이건 그 차이수는 쪼다 1.5 백분수좌우인바 기본상에서 균형적이었다(도표 5를 보라). 뿐만아니라 20-39세의 조선족인구의 결혼연령기의 여성과 남성의 비례는 대체로 100 : 100이었다.

성별비례는 민족의 혼인상태에 대하여 직접적 영향을 일으킨다. 그러나

민족의 혼인상태는 결코 완전히 민족인구의 성별비례상태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비록 조선족인구의 성별구성은 대체로 추세가 합리화되고 균형적이지만 조선족이 다른 민족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이 인구중에서 일정한 비례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태면 흑룡강성의 조선족가정호수가운데서 순 본민족인 경우가 94,024호이고 다른 민족과 결성된 가정이 8,302호로 조선족가정호수의 8.11%를 점하고 있다. 만약 다른 민족과 결성된 가정을 매호에 1명씩 계산한다 하더라도 전 성 조선족인구의 1.92%를 점한다.

〈표 5〉 동북3성 조선족인구의 성별구성 및 성별비례 통계

성의 명칭	년 도	인 구 수			성 별 비 려 (여성=100)
		합 계	남 성	여 성	
길 립	1982	1,104,071	547,217	556,854	98.26
	1964	866,627	429,500	337,127	98.25
흑룡강	1982	4,316,44	214,107	217,537	98.42
	1964	307,594	160,915	145,679	111.14
랴 녕	1982	198,252	96,992	101,260	95.78
	1964	146,513	75,322	71,919	105.80

자료 : <<분발하여 전진하는 40년>>의 자료에 의해 작성.

때문에 우리는 조선족 인구의 성별구성을 언급할 때 마땅히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독특한 방면과 성별비례의 차이수가 많지 않고 대체로 균형적인 면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단지 혼인적측면에서 그 의의를 이해할것이 아니라 더욱 깊고 넓은 사회적 의의에서 이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조선족인구의 연령구성(年齡構成)

인구의 연령구성은 민족의 인구구성에서의 중요한 내용이다. 민족의 인구의 연령구성은 민족의 인구구성, 가정구성, 경제구성, 소비구성(消費結

構), 문화구성, 교육구성(教育結構)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따라서 전반 민족구성과 민족소질에 직접적인 중요한 영향을 일으키게 된다. 때문에 민족인구의 연령구성은 지난날의 민족의 사회발전의 표기이고 오늘날의 민족발전의 중요한 조건이며 또한 미래의 민족발전의 예시(預示)가 된다. 민족인구의 연령구성이 합리하면 민족발전에서 촉진적요소로 되고 그와 반대일 경우에는 민족 발전에서 저해적요소(阻滯因素)로 되는 바이다.

민족인구의 연령구조의 변화는 또 민족사회의 역사적전통, 경제문화, 교육위생등, 상태의 제약(制約)을 받게 된다. 건국초기에 조선족은 혼인, 생육 방면에서 일부 낡은 풍습과 뒤떨어진 관념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당시 경제상태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많이 낳는 정황이 보편적이었는 바 50-59세의 조선족여성의 평생 생육수준은 5.5해이었으니 자연적증가률이 높고 소년아동이 총인구가운데서 비교적 큰 비례를 점하고 있었다. 다른 일면으로는 그 당시 위생의료조건 등 방면에서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조선족인구의 평균수명이 내려갔다. 이 모든 원인으로 그 당시 조선족인구의 연령구성은 비례에 잘 맞지 않는 상태에 빠져있게 되었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조선족의 경제생활상태가 개선되고 문화교육위생사업이 발전되고 여성의 취업률이 올라가고 산아제한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인구의 출생률이 내려가서 전국의 평균수준보다 낮아지고 인구의 자연증가률이 내려가고 인구의 증가속도가 느려지고 인구의 평균수명이 높아졌으며 인구의 연령구조가 상대적으로 합리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조선족의 0-14세의 인구는 500,685명으로 조선족총인구의 28.36%를 점하고 65세이상의 노년인구는 72,726명으로 조선족총인구의 4.12%를 차지하며 총부담계수는 48.11%이며 그 가운데서 소년아동에대한 부담계수(負擔係數) 42.01%이고 노년인구에 대한 부담계수는 6.10%이며 연령의 증가수(中位數)는 24.33세이다. 길림, 흑룡강, 료닝, 복경의 조선족은 상술한 면에서의 구체적정황과 수자가 조금씩 다르다(도표 6을 보라)

〈표 6〉 조선족과 전국, 한족 통과와 인구의 연령구성 대비

		0-14세 인구가 총인구중 점한%	65세이상 인구가 총 인구중 점 한%	노인과 소년 아 동의 비 례(%)	연령의 중간수 (세)	총부담계 수(%)	소년아동 에대한 부 담계수(%)	노인에대 한 부담 계수(%)
전 국 수 준		33.59	4.92	14.65	22.90	62.62	54.63	7.99
한 족		33.19	4.94	14.88	22.89	61.65	53.66	7.99
조 선 족		28.36	4.12	14.53	24.33	48.11	42.01	6.10
그 가 운 대 서	길 립 성	27.73	4.25	15.23	24.56	47.07	40.8	6.21
	흑룡강성	30.13	3.98	13.21	23.68	51.77	45.72	6.05
	료 념 성	27.93	3.75	13.43		46.36	40.87	5.49
	북 경 시	19.13	2.74	14.32	28.96	27.99	24.48	3.51
신강소수민족		42.86	4.72	11.01	18.96	90.76	81.76	9.00
서 장		37.60	4.80	12.77	21.40	73.61	65.28	8.33

설명: 서장 총인구가운데서 소속민족의 인구가 95.2%를 점한다.

자료: 중국의 제2, 3차 전국인구조사 자료에 의해 작성.

도표 6에서 북경시 조선족인구의 연령구성은 동북3성 조선족에 비하여 비교적 뚜렷한 차이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북경의 조선족은 대부분이 건국후에 북경에 조동(調動)되어 사업하고있거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북경에 비치되어 사업하고있는것과 관계되며 상당한 일부분의 인구가 재교(在敎) 대학생인것과도 관계된다.

도표 6에서 보아 낼수 있는바 조선족의 0-14세의 인구수가 총인구가운데서 점한 비례는 전국의 수준, 한족의 수준보다 백분수가 5좌우 낮으며 신강, 서장의 수준보다 백분수가 14.5~9.24 낮으며 총부담계수가 전국의 수준, 한족의 수준보다 뚜렷하게 낮으며(13.5아 백분수가 낮다) 신강 소수민족의 수준보다 40여 백분수가 낮다. 그리고 조선족연령의 중간자리수가 전국보다 1.43세 높고 한족보다 1.42세 높다. 이것들은 모두 총체적으로 조선족인구의 연령구조는 상대적으로 합리화되고 있음을 표명한다. 일

반적 국제표준(도표 7을 보라)에 근거하면 조선족인구의 연령구조는 이미 청년형에서부터 성년형으로 변화되었다.

〈표 7〉 인구의 연령구조표형에 대한 국제통용표준

항 목	청 년 형	성 년 형	노 년 형	조 선 족
0-14세의 인구가 총인구중에서 점한 비율	40% 이상	30-40%	30% 이하	27.73%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중에서 점한 비율	5% 이하	5-10%	10% 이상	4.25%
65세 이상과 14세 이하의 인구의 비율	15% 이하	15-30%	30% 이상	15.34%
연령의 중간수(年齡 中位數)	20세 이하	20-30세	30세 이상	24.56%

자료 : 중국의 제3차 전국인구조사자료에 의해 작성.

조선족인구의 문화구성(文化構成)

민족인구의 문화구성은 민족소질의 직접적 체험과 반영이다. 이것은 민족의 교육발전의 정도, 과학기술의 장악정도, 문화수양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해 준다. 조선족은 예로부터 교육을 중시하고 문화를 중시하는 우수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동북3성의 조선족거주지에서는 중학(초급중학)교육을 기본으로 보급하였다. 조선족 소학교졸업생의 진학률은 흑룡강성이 85%이상에 달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는 90이상이나 달한다. 흑룡강성 조선족중에서 초급중학교 졸업생이 고급중학교에로 진학하는 비례가 70%좌우에 온정되어 있고 최근 몇년동안은 고급중학교 졸업생이 대학교에로 진학하는 비율이 10%가량이고 1978-1985년 사이에 대학(전문대학을 망라하여)에 시험쳐 들어간 조선족학생이 3514명 있다. 조선족의 문맹수가 대폭 감소되고 문맹률이 대폭 내려갔다. 조선족인구가운데서 12세 및 그 이상의 1,381,625명의 인구중에서 문맹, 반문맹이 145,055명이며 문

맹률이 10.5%인것으로 33.74%인 전국 문맹률보다 백분수가 24.24 낮고 42.54%인 소수민족 문맹률의 평균수보다 백분수가 32.04 낮다. 특히 남성의 문맹률은 단지 4.69%를 접하며 21.09%인 전국 남성의 문맹률보다 백분수가 16.4 낮다(도표 8을 보라). 조선족 청, 장년들은 이미 문맹을 퇴치 하였다.

〈표 8〉 조선족인구(12세 및 그 이상)중 문맹, 반문맹인구수

항 목 성의 명칭	문맹, 반문맹 인구수			문맹, 반문맹인구가 점한비율(%)		
	루 계	남 성	녀 성	루 계	남 성	녀 성
길 립 성	92,317	20,088	72,229	10.60	4.67	16.29
흑룡강성	32,237	7,332	24,905	9.79	4.54	14.85
랴오닝 성	18,381	3,817	14,564	11.75	5.05	17.98

자료 : <<중국소수민족인구>>에서 인용.

조선족가운데서 초급중학교이상의 문화정도를 가진 인구의 수효가 신속히 증가되어 900,083명에 달하며 조선족 총인구의 50.99%를 접하며 조선족문화총인구의 64.16%를 접한다. 소학교이상 문화정도인 인구수는 402,778명에 달하며 조선족총인구의 79.47%에 달한다(도표 9를 보라). 1000명당 들어있는 각종 문화정도의 인구수에 따라 계산하면 대학문화정도(졸업생, 수료생〈肄生〉, 재교생을 망라하여)는 20명으로 전국 평균수준의 3.33배이고 전국 소수민족 평균수준의 5배이며 고급중학문화정도는 183명으로 전국평균수준의 2.77배이고 전국 소수민족 평균수준의 4.07배이며 초급중학문화정도는 307명으로 전국 평균수준의 1.72배이고 전국 소수민족 평균수준의 2.52배이다. 이상 세 방면의 지수를 보면 조선족이 한족의 수준보다 뚜렷이 높다(도표 10을 보라). 특히 동국 3성을 제외한 일부 성과 시(市)의 조선족인구중에서의 1000명당 대학문화정도의 인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서 이를 테면 북경은 316,5명이고 천진은 126,2명

〈표 9〉 조선족문화정도의 통계

		대 학 (수료생, 재교생 을 망라)	고급 중학	초급 중학	소 학	누 계	총인구중 소학이상 문화정도 가 점한비 율
조 선 족		34,575	323,837	541,681	502,695	1,402,778	79.47%
그 가 운 데 서	길 립 성	21,489	215,805	339,917	301,074	878,285	79.62%
	흑룡강성	6,425	71,587	129,733	133,916	341,661	79.15%
	료 념 성	3,983	30,088	63,168	59,808	157,052	79.22%

자료 : 중국의 제3차 전국인구조사자료에 의해 작성.

이고 산서성은 101명이고 내몽골도 21,5명에 달한다. 북경과 산서성의 조선족은 12세 및 그 이상의 인구중에서 문맹률이 각각 단지 3.0%, 4.7%씩이다. 전체적으로 조선족은 중국의 여러 민족가운데서 전체 민족인구문화정도가 비교적 높은 민족인 것으로서 건국 40년이래 민족문화소질의 제고가 매우 뚜렷한 민족이며 민족인구소질이 크게 제고된 민족이다.

조선족인구의 직업적구성(聯並構成)

민족인구의 직업적구성은 민족경제문화의 발전정도를 보여주고 농업, 공업, 상업의 발전상태 및 비례관계를 보여주며 사회생산과 사회관리의 발전정도를 재는 하나의 지표이다. 때문에 민족의 노동인구의 직업구성상태는 그 민족의 경제 기술의 발전수준, 민족사회의 진보와 문명정도를 표명한다.

〈표 10〉 조선족인구의 문화구성 및 그와 전국, 소수민족과의 비교표(인구 1000명당)

	소학이상 문 화정도 누계	대 학	고급 중학	초급 중학	소 학	문맹, 반 문맹 비율 (%)	
전 국	604	6	66	178	354	33.74	
한 족	614	6	68	182	358		
소수민족	473	4	45	122	302	42.5	
조 선 족	795	20	183	307	285	10.5	
그 가 운 데 서	길 림 성	796.2	19.5	195.5	308.1	272.9	10.6
	흑룡강성	791.5	14.9	165.8	300.5	310.2	9.8
	료 녕 성	792.2	20.12	151.8	318.6	301.7	11.8
	북 경 시	962.5	316.5	275.8	217.1	156.1	2.98

자료 : 중국의 제3차 전국인구조사자료에 의해 작성.

조선족인구의 직업구성은 건국후의 몇십년사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족지구의 사회생산과 경제사업이 발전됨에 따라, 그리고 조선족의 교육사업이 발전됨에 따라 본래는 대부분이 단일하게 벼농사만 짓는 정황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날로 더 많은 사람들이 벼재배업을 떠나 공업, 상업, 봉사업에 종사하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학교교육을 받고나서 당조직, 정부, 군중조직에, 기업소, 사업소에 들어가 령도, 관리 사업 등을 맡고있으며 뿐더러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북3성 이외의 지역에 배치받고가서 사업하며 조선족의 취업인구가 대폭 증가되어 1982년에는 918,673명에 달하고 조선족 총인구의 50.04%를 점하게 되었다. 조선족인구의 직업구성 및 그들과 한족, 소수민족등과의 각종 직업인구의 비례는 도표 11과 같다.

도표 11에서 조선족인구의 직업적구성의 일부 특징을 보아낼 수 있다.

① 조선족 취업인구의 수가 총인구의 반수를 초과하였다. 이 점은 노인, 소년아동에 대한 총부담계수가 비교적 낮은 조선족에 대하여는 전체 민족

〈표 11〉 조선족인구의 직업구성 및 전국, 소수민족 등과의 대비(%)

		총인구중 취업인구가 점한비례(%)	각 직업인수가 취업인구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比重)%							
			장 가지 전문 기술 일군	국가, 당, 군중 조직, 기업소, 사업소 책임자	사무일군 상업노동자	농사성 사업 일군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노력자	생산노동자, 운수노동자	분류하기 힘든 일군	
전	국	51.59	5.07	1.565	1.30	1.81	2.21	71.98	15.99	0.09
한	족	52.14	5.15	1.59	1.32	2.01	2.27	71.18	16.56	0.09
소 수 민 족		49.21	3.99	1.14	1.02	1.19	1.29	83.82	7.54	0.05
조 선 족		52.04	10.20	3.00	2.15	2.73	3.39	57.59	20.82	0.15
그 가 운 데 서	길 림 성	53.12	9.70	3.13	2.36	2.87	3.17	57.69	20.93	0.14
	육 통 강 성	48.44	10.62	2.51	1.61	2.31	3.52	62.21	17.08	0.11
	료 녕 성	54.81	9.86	2.89	1.71	2.65	3.79	52.48	26.41	0.21
	북 경 시	54.82	13.75	3.37	4.26	4.23	8.32	21.86	43.98	0.24
서	장	5.22	3.50	1.58	1.29	0.51	1.22	85.18	6.70	0.002
신강소수민족		46.40	5.11	1.07	1.13	1.54	1.60	81.30	8.19	0.004

자료: 중국의 제3차 전국인구조사자료에 의해 작성.

의 생산의 발전과 생활의 재고에 매우 유리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흑룡강성 조선족의 노동연령인구의 취업률은 69.33%이고 길림성 조선족 여성의 취업인구의 비례는 48.6%에 달한다. 이것들은 모두 본 성의 같은 류의 평균수준보다 높다.

② 조선족인구중에서 정신노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취업인구의 35%를 차지하며 7.94%인 전국, 8.06%인 한족, 6.15%인 소수민족의 수준보다 근 1배나 1배이상이 높으며 서장이나 신강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다. 그 가운데서 조선족의 각종 전문기술일군은 취업인구의 10.20%를 점하며 (북경의 조선족은 더구나 13.75%에 달한다) 전국, 한족, 소수민족보다 각각 101%, 98%, 155%씩 높으며 서장보다 191%높다. 조선족인구가운데서 국가기관, 당조직, 군중조직, 기업소, 사업소의 책임자의 수량이 취업 일군의 3%를 점하며 전국, 한족, 소수민족의 같은 류의 비례의 192, 188, 263%에 각각 해당하며 신강소수민족의 같은 류의 비례의 280%에 해당한다. 이것들은 모두 조선족의 문화교육의 발전상태와 국가사무관리, 경제관리에대한 참가 그리고 생산 창조 면에서의 능력과 상태를 표명한다.

③ 조선족인구중에서 육체노동에 직접 종사하는 인구가 취업인구중에서의 비례는 84.53%인것으로서 91.97%인 전국, 91.85%인 한족, 93.80%인 소수민족보다 좀 낮다. 특히 조선족 산업노동자의 비례는 전국보다 30% 높고 소수민족보다 176% 높으며 조선족중에서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에 종사하는 일군들이 취업인구중에서 점하고 있는 비례는 전국이나 소수민족보다 모두 낮다. 이것은 곧 조선족은 공업발전이 비교적 빠르고 농업인구의 전의(轉移)속도가 비교적 빠르며 그것들이 모두 전국의 앞장에 섰다는것을 설명한다. 이것들은 곧 조선족인구의 직업적구성이 조선족의 발전에 이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직업적구성이 상대적으로 합리함을 표명한다.

총적으로 말하여 중국 조선족의 인구수량은 증가되는 과정에서 적당히 제어(提制)되었고 인구의 질이(인구의 문화 소질과 과학기술, 관리능력

을 망라하여) 뚜렷하게 제고되었고 인구의 연령구성, 직업적구성의 추세가 상대적으로 합리하고 전체 인구구성은 더욱 합비례적이고(合比例) 자체의 발전에 이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고있다.

조선족인구구성이 그 자체의 발전에 대한 영향

민족인구구성의 현상대는 지난날의 민족의 발전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현유의 민족인구구성의 상태는 민족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되는것이다. 마찬가지로 상술한 조선족의 인구구성 역시 조선족의 발전에 기필코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 조선족의 인구발전은 이미 속도가 느리고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성별, 연령의구조가 합리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점은 지난날과 같은 그런 인구의 발전이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의 발전과 서로 어울리지 못하던 모순을 완화시키고 인구의 발전이 인민생활수준의 제고와 서로 어울리지 못하던 모순을 조화시키는데 크게 이로울 것이다. 예컨대 연변에서는 1949—1979년까지 인구가 2.14배 증가되었는데 양식산량은 다만 2.11배밖에 증가되지 못하였고 한 사람당 평균점유량신산량이 537근으로부터 524근으로 내려갔으며 전국의 한 사람당 평균점유량식량보다도 100근이나 적었다. 그러므로 연변에서는 해마다 국가로부터 양식 7만톤좌우를 떼돌림받았다. 건국이후에 연변은 비록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중, 소학생 총수가 급격히 증가된(총인구의 26.9%를 차지했다)탓으로 1979년도만 해도 학교청사가 10여만평방미터나 모자랐고 또 교수질이 내려 감으로 하여 1980년도의 고급중학교 졸업생은 오직 4.1%가 대학에 진학하였다. 이 비례는 길림성과 전국의 평균수준보다 낮다. 그때 조선족은 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와 가정의 총부담계수가 늘어나고 국가 총자금의 흐름방향과 가정의 소비 추향에 영향을 끼치고 인민생활수준의 제고가 느리게 되었다. 80년대부터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면서 인구의 순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연령구조가 점차 상대적으로 합리화되었고 연변의 사회 발전과 인민생활의 개선이 촉진되었고 조선족의 민족소질의 제고에도 훌륭한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조선족인구의 목전의 발전추세는 전체 민족의 여러 방면에서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것이다.

물론 조선족인구의 증가는 낮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데도 주의해야 한다. 왜냐 하면 이 문제는 이를 태면 민족인구의 노년화문제, 조선족 자치구역의 민족구성비례문제 그리고 민족자치기관의 자치권의 충분한 행사문제 등등의 여러 면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변의 조선족인구가 전자치주 인구중에서 점한 비례가 자치주전립시의 60.94%로부터 1988년도의 40.77%로 내려갔는데 이것은 조선족인구의 증가속도가 느린 것과 관계가 없는것이 아니다. 우리는 마땅히 민족발전의 장원한 안광으로 이 문제를 보아야 하며 사회의 발전에도 이롭고 민족의 생존발전에도 이롭도록 다방면으로 통일적으로 포치하고 전반을 돌보며 장원한 타산을 해야 한다.

— 조선족의 인구발전은 이미 민족인구문화소질이 날로 제고되는 추세가 나타났고 우생우육(佑生佑育)하는 초보적인 사회환경이 이루어졌다. 조선족인구는 출생률이 내려가고 학교나이 어린이수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인구의 보편적 교육과 대학교육을 받는 인원수가 증가되고있다. 지금 조선족은 전국 각 민족중에서 인구당평균 문화수준이 제일 높은 민족중의 하나로서 평균수준이 초급중학교 2학년의 수준에 이르렀고 인구 1000명당 대학생수가 제일 많은 민족의 하나이며 전체 조선족의 민족문화소질은 상당히 커다란 제고를 가져왔다. 민족소질의 제고는 민족발전에 관계되는 중요한 내용이고 징표이다. 조선족 문화수준의 제고, 사회문화 위생시설의 발전, 가정생활수준의 제고는 우생우육(佑生佑育)사업에 훌륭한 조건을 창조하여 주었다. 목전 조선족의 거주지에서는, 특히 도시에 거주하고있는 조선족들은 우생우육에 상당한 주의력(정신 및 물질면을 망라하여)을 경주하고있다. 이것은 새세대의 사람을 육성하고 전체 조선

민족의 소질을 제고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우생우육을 하고 조선족인구의 신체소질을 제고하는 면에서 비록 조선족이 많은 일들을 하였으며 이를테면 소년아동의 평균 키 높이의 증가면에서 조선족 아동의 평균 키가 몇 센치 증가된것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다. 하지만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볼때 일부면에서는 상기도 일정한 거리와 부족점이 존재한다. 우리는 반드시 조선족의 음식문화에 유의하여 우수한 면을 보전, 발양할 뿐만아니라 신체의 건강, 우생우육에 불리한 면의 풍속, 습관등을 개혁도 하여야 한다. 이것은 조선족의 발전에 심원한 영향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 조선족인구의 직업구조가 현대민족으로서 필요한 방향으로 발전하고있다. 조선족의 취업인구는 52%이상에 달하며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의 노력자들이 취업인구 총수에서 점한 비례가 57%좌우로 내려갔고 산업노동자의 비례는 반대로 20%가 넘게 증가되었으며 각 종 전문기술일군의 비례가 이미 10.2%를 달한다. 그리고 도시에 거주하는 조선족인구도 40—50%좌우에 달한다. 이것은 조선족의 직업구성이 점차 상대적으로 합리화되고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현대민족으로서의 한개 필요한 조건은 바로 공업 발전이 일정한 수준이 도달하고 각 부분의 비례가 합리화한것이다. 조선족의 목전 상태는 비록 그 조건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있지만 필경 자체의 직업구성의 비례를 조화시키기 이미 시작하였다. 이 점은 조선족이 발전 속도를 가속화하고 시대의 조류를 따르는데 더없이 중요하다. 전국 평균수준의 근2배에 맞먹는 기업소, 행정관리 일꾼과 전문 과학기술일꾼의 비례는 조선족이 현대적 과학기술과 관리방법을 접수하고 발전시키며 현대화한 공업기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의 담보로 된다. 최근 몇년동안 연변동 지역의 경제가 신속히 발전된것이 바로 하나의 실례이다. 산업노동자대오의 장대는 공업발전의 징표이거니와 민족내부에서의 영도적력량이 증가된 징표이기도 하며 민족의 사회—정치능력의 제고와 정치소질의 제고에서의 하나의 유력한 조건으로 된다.

2. 조선족의 분포 및 그 특징

조선족의 분포상황(狀況)

민족의 분포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민족의 지역적분포, 인구분포는 민족의 자체의 역사활동,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민족분포의 특징은 다름아니라 민족의 역사발전, 사회생산발전, 주변의 민족과의 경제, 문화, 정치적 교류, 왕래관계의 발전 그리고 민족의 전통, 거주지의 자연환경의 반영인것이다. 민족의 분포는 민족역사발전의 결과일뿐만 아니라 민족의 장래 발전에서의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일정한 수량의 민족인구와 일정한 범위의 거주지역 특히 잇닿은 집거구역은 민족사회발전에서 극히 중요한 전제조건이고 토대이다. 그것은 민족의 특징과 문화전통을 보존하고 민족의식과 민족통일성을 강화하고 민족경제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 조선족의 분포 및 그 특징은 그들이 조선반도로부터 이주하여 와서 정착했으며 게다가 이주 노선, 시간과 자연조건의 관계로 말미암아 독특한 분포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적분포로 놓고보면 조선족은 주로 동북의 흑룡강, 길림, 료녕 그리고 내몽골, 북경, 하북 등 29개성, 시, 자치구의 1002개 현과 시에 (도표 12를 보라) 분포되어 있다.

인구적분포로 놓고 보면 1982년에 제3차 전면적인 전국인구조사를 할때 조선족인구가 도합 1,765,204명이었고 주로 동북3성에 분포되어 있으며 길림성이 1,104,074명으로 전국 조선족인구의 62.54%를 점하고 있었고(그 가운데서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인구의 42.77%를 점하고있다) 흑룡강성이 431,644명으로 전국 조선족인구의 24.45%를 점하고 있었고 료녕성이 198,252명으로 전국 조선족 인구의 11.23%를 점하고 있었고 내몽골자치주가 17,580명으로 전국 조선족인구의 0.995%를 점하고 있었다(도표 13, 14를 보라). 이 3성의 각현과 시의 조선족인구수량의 분포정황도 판이

〈표 12〉 각 성, 시, 자치구의 조선족 인구총계(명)

지 구	인구수	지 구	인구수	지 구	인구수
북경시	3,909	절강성	107	사천성	366
천진시	828	안휘성	219	귀주성	105
하북성	1,759	북건성	51	운남성	93
산서성	527	강서성	131	서장자치구	21
내몽고자치구	17,580	산둥성	930	산시성	653
료녕성	198,252	하남성	505	감숙성	417
길림성	1,104,074	호북성	669	청해성	242
흑룡강성	431,644	호남성	222	닝하회족자치구	186
상해시	461	광둥성	147	신강위글자치구	438
강소성	302	광서족자치	79		

자료 : 중국의 제3차 전국인구조사자료에 의해 작성.

하게 달랐다. 흑룡강성은 조선족인구가 1천명이상인 현과 시가 45개 있었고 1만명이상인 현과 시가 14개 있었으며 길림성은 조선족인구가 1천명이상인 현과 시가 34개 있었고 1만명이상인 현과 시가 21개 있었고 5만명이상인 현과 시가 8개 있었고 10만명이상인 현과 시가 3개 있었으며 료녕성은 조선족인구가 1천명이상인 현과 시가 24개 있었고 1만명이상인 현과 시가 3개 있었고 5만명이상인 현과 시가 1개 있었다(도표 15를 보라). 동북3성을 내놓고 26개 성, 시, 자치구의 각 현과 시중에 조선족인구가 500명이상인것이 9개 있었고 1000명이상인것이 4개 있었고 2000명이상인것이 2개 있었고 3000명이상인것이 1개 있었다(도표 16을 보라).

〈표 13〉 동북3성 지역별 조선족인구 분포상태

성의 명칭	지 역	인구수 (명)	조선족 총인 구중에서 점 한비율(%)	성의 명칭	지 역	인구수 (명)	조선족 총인 구중에서 점 한비율(%)
흑 룡 강 성	합빈시	44,220	2.50	흑 룡 강 성	학강시	3,684	0.21
	치치할시	16,546	0.94		계서시	33,526	1.89
	묵단강시	150,063	8.50		쌍압산시	2,025	0.11
	가목사시	50,695	2.87		대경시	3,390	0.19
	칠래하시	9,977	0.57		수화지구	14,628	0.83
	송화강지구	86,138	4.87		흑하지구	4,644	0.26
길 림 성	이춘시	10,656	0.60	길 림 성	대흥안령지구	1,452	0.08
	장춘시	42,643	2.41		무순지구	45,182	2.56
	길림시	168,947	9.57		본계지구	10,155	0.58
	사평지구	14,951	0.84		단동지구	13,292	0.75
	통화지구	118,905	6.74		금구지구	1,101	0.06
	백성지구	3,919	0.22		영구지구	16,334	0.93
	연변조선족 자치주	754,706	42.77		부신지구	710	0.04
	심양지구	72,096	4.08		료양지구	5,298	0.30
	대련지구	2,428	0.14		철령지구	23,097	1.31
	안산지구	7,589	0.43		조양지구	970	0.05

※ 이 도표에서의 시에는 시 관할현의 인구도 망라되며 일부의 지구는 지금이며 시로 고치였다.

자료 : 중국의 제3차 전국인구조사자료에 의해 작성.

조선족의 분포특징

중국조선족의 분포상황, 특히는 동북3성 조선족의 인구, 지역분포 상황 가운데서 중국 조선족의 민족분포특징을 볼 수 있다.

① 동북3성 조선족의 분포는 거주지가 서로 연결되었으면서도 층차가 나뉘어진 닭벼의 형태(鷄冠形狀)를 이루고있다.

〈표 14〉 연변지구 조선족인구의 분포, 수량, 비례, 밀도통계(1988년)

지 구	총인구 (명)	조선족인 구(명)	조선족 인구가 점한%	이곳 조선족 인구가 전 주 조선족인구중 에서 점한%	토지면적 (km ²)	인구밀도 (인 / km ²)	조선족분 포 밀도 (인 / km ²)
연길시	258,081	153,829	56.60	18.87	170	1,518.12	904.47
도문시	118,388	68,618	57.96	8.42	530	223.37	129.46
돈화현	452,968	23,225	5.31	2.85	11,500	39.38	2.01
룡정현	287,143	189,770	66.08	23.28	4,210	68.20	45.07
훈춘현	170,844	90,646	53.06	11.12	5,290	32.29	17.13
화룡현	242,199	145,940	60.26	17.90	4,930	49.12	29.60
왕청현	268,159	89,613	33.42	10.99	8,560	31.32	10.46
안도현	205,261	53,571	26.09	6.57	7,510	27.33	7.13
누 계	2,003,043	815,212	40.70	100	42,700	46.90	19.09

자료 : 흑룡강성, 길림성, 료녕성의 제3차인구조사자료에 의해 작성.

〈표 15〉 동북3성 조선족인구의 수량조별 현, 시 분포통계(개)

성의 명칭	천명이상 현, 시	만명이상 현, 시	5만명이상 현, 시	10만명이상 현, 시	주 : 본성 현, 시 총수 해
흑룡강성	45	14	—	—	79
길 립 성	34	21	8	3	47
료 녕 성	24	3	1	—	58

※ 이 도표에서의 시의 조선족인구는 시 관할 현의 조선족인구수가 망라되지 않았음(도표 16도 같음).

자료 : 연변 조선족자치주 제3차인구조사자료 및 <<연변 조선족자치주 개황>>에 의해 작성.

지역적분포로 놓고 보면 동북3성에서 조선족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는 현과 시는 모두 연변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를테면 흑룡강성 조선족인구중의 64.97%를 점하고 있는 묵단강시, 송화강지구, 할빈시(280,421)는 각각 길림성의 연변조선족자치주, 길림시, 장춘

시와 서로 잇닿아 동북부의 제1연결충차를 이루며 이것을 토대로 하여 흑룡강성의 제2연결충차(계서시, 칠태하시, 가목사시, 쌍압산시, 수화지구,

〈표 16〉 각 성, 시, 자치구(동북3성을 제외함) 조선족인구의
수량조별 현, 시 분포통계(개)

	100명이상 현, 시	500명이상 현, 시	1000명이상 현, 시	2000명이상 현, 시	3000명이상 현, 시
수 량 그 중 내몽골이 점한 수량	22 6	9 7	4 4	2 2	1 —

자료: 흑룡강성, 길림성, 료녕성의 제3차 인구조사자료에 의해 작성.

안달시)를 이룬다. 그외의 부분은 바깥테두리연결충차라 할 수 있고 인구 비례가 아주 작다. 료녕성 조선족인구중의 46.27%를 점하는 철령지구, 무순지구, 본계지구, 단동지구(91,726명)는 각각 길림성의 통화, 사평지구와 서로 인접하고 있으며 서남부의 제1연결충차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 료녕성의 제2연결충차(부신지구, 심양지구, 료양지구, 안산지구, 영구지구, 대련지구)를 이루고 있으며 그들이 료녕성 조선족인구의 52.69%를 점하고 있다. 나머지 부분의 조선족인구는 오직 료녕성 조선족인구의 1.04%를 점한다. 그러므로 길림성의 5개 지구, 주, 시와 직접연결되어 있는 제1연결충차에 7개의 지구, 시가 있고 이상 12개의 지구, 주, 시에 있는 조선족인구가 1,472,302명으로 전국 조선족 총인구의 83.41%를 점한다.

인구의 분포로 놓고보면 연변지구 조선족의 상태는 연길, 룡정, 도문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 북쪽, 서쪽 삼면으로 방사상태(放射狀)를 이루고 있으며 길림성은 연변을 중심으로 하여 서쪽, 서북쪽으로 인구수량이 점차 감소되었으며 흑룡강성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조선족의 인구수량이 점차 줄어 들었으며 료녕성은 기본상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로 조선족인구의 수량이 점차 감소되었다. 하지만 료녕성 중부의 북쪽인 심양시는 조선족인구의 수량이 료녕에서 제일 많으며 따라서 심양을 중심으로 하여 사면으로 분포된 원형의 방사형태를 또 이루고 있다.

만약 동북3성 조선족의 인구와 지역 분포를 종합적으로 관찰한다면 우리는 이 지역의 조선족의 분포는 닭벼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는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연변지구를 토대로 하여 흑룡강성이 앞부분으로 되고 장춘, 길림, 사평, 통화가 중간부분으로 되고 료녕성이 뒤부분으로 되어 닭벼상태를 이루었다. 이 몇부분의 조선족인구가 전국 조선족인구중에서 점한 비례는 각각 토대부분이 42.77%, 앞부분이 24.45%, 중간부분이 19.55%, 뒤부분이 11.23%이다. 이 상태를 보면 토대부분이 굴직하고도 크며 앞부분이 크고 뒤부분이 작으며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제1연결층차가 상대적으로 인구비례가 크고(두껍다 할 수도 있다) 제2층차가 상대적으로 비례가 작다(얇다고 할 수도 있다). 물론 동북3성 조선족의 분포 상태는 연변을 핵심으로 하여 동쪽, 북쪽, 서쪽으로 내뻗은 반원형의 방사상태를 이룬다 할 수도 있다.

② 조선족의 분포형식은 잡거를 위주로 하여 집거, 잡거(雜居), 산거(散居)가 결합된 거주형식이다.

조선족, 특히 흑룡강성, 료녕성의 조선족은 그들이 중국에 이주한 시간과 주로 벼농사를 짓는 원인으로 동북3성 그리고 내몽골, 하북에서 자연조건, 기후, 지형지질, 수원적으로 수전농사에 이로운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그 후에 또 학습, 사업, 생활 등 원인으로 전국 각지에 분포되었다. 중국 민족이론계(理論界)에서 인정하고있는 집거, 잡거, 산거의 개념에 근거하면 조선족의 잡거, 산거 인구는 총인구의 56.48%를 점하고 있다.

조선족의 집거지역은 주로 연변조선족자치주와 장백조선족자치현이 있다. 이두 조선족구역자치지방에는 조선족이 비교적 밀집되어 있는바 총인구가 767,859명에 달하고 전국 조선족인구의 43.52%를 차지한다. 조선족

〈표 17〉 조선족민족향(진)의 조선족인구총계

성의 명칭	민족향명칭	전 향 인구(명)	민족향을 건립한 민족의 인구(명)	민족향을 건립한 민족의 인구가 점한%
흑 룡 강	해림현 신안 조선족향	10,293	7,944	77.1
	해림현 해남 조선족향	15,570	7,316	46.9
	밀산현 화평 조선족향	16,020	5,158	32.2
	밀산현 홍개 조선족향	13,778	4,149	30.1
	녕안현 와룡 조선족향	15,300	4,299	59.7
	녕안현 성동 조선족, 만족향	18,147	5,742	31
	녕안현 향남 조선족, 만족향	22,191	8,001	36
	둥녕현 삼차구 조선족향	17,150	7,365	43
	화천현 성화 조선족향	3,800	3,781	99
	랑원현 랑왕 조선족향	12,700	8,800	69.2
	의란현 영란 조선족향	11,889	3,191	26.8
	라북현 동명 조선족향	3,600	3,576	99
	철러현 년풍 조선족향	11,783	3,691	31.3
	계동현 계림 조선족향	9,447	9,242	97.8
성	계동현 명덕 조선족향	9,596	2,945	31
	오상현 민락 조선족향	12,456	6,211	50
	상지현 하동 조선족향	15,165	6,443	42.5
	수화현 홍화 조선족향	3,805	3,685	96.8
	북안시 주성 조선족향	4,420	1,816	41
길 림 성	유수현 연화 조선족향	2,413	2,338	96.8
	류하현 강가점 조선족향	11,956	4,838	41.3
	취남현 루가 조선족향	14,014	2,598	18.5
	교하현 오림 조선족향	13,553	3,690	28
	매화구시 화원 조선족향	18,575	3,774	27.6
	류하현 삼원 조선족향	8,779	2,263	29.6
	집안현 랑수 조선족향	8,167	1,510	26.6
	통화현 김두 만족, 조선족향	8,537	1,831	32
	영길현 로성자 만족, 조선족향	21,365	2,973	34.5
	매하구시 소항 만족, 조선족향	10,223	1,290	29.4

	화현 대천 만족, 조선족향	16,922	935	30.8
료 녕 성	심양시 우흥구 대흥 조선족향	15,000	6,000	40
	심양시 동릉구 혼하참 조선족향	21,173	8,034	37.94
	무순시 순성구 리석채 조선족진	26,730	8,451	31.62
	무순시 순성구 전전 조선족진	18,280	4,885	26.74
	신빈만족 자차런 왕청문 조선족진	17,000	13,000	76.47
	[그 외에 료녕성에는 또 12개의 조선족과 만족, 세베족이 연합하여 건립한 향, 진이 있다]			

자료 : 중국의 제3차 전국인구조사자료에 의해 작성.

도표주해 :

- ① 도표에서의 인구수는 흑룡강성, 길림성, 료녕성이 각각 1985년, 1989년, 1987년의 수자이다.
- ② 길림성에 있는 4개의 조선족 만족 연합향은 민족향을 건립한 민족의 인구의 란에 오직 조선족인구수만 통계하였다.
- ③ 료녕성의 난에는 오직 일부 조선족향, 진을 통계하였고 민족향을 건립한 민족의 인구란의 수치(數字)는 본향, 진의 소수민족수이다.

은 또 51개의 민족향(民族鄉), 진(鎮)이 있다(다른 민족과 연합하여 건립한것을 망라하여). 매개의 조선민족향, 진에는 모두 약 몇천명내지 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족인구가 있다. 민족향, 진의 조선족인구는 약 20만명에 가까우며 전국 조선족인구의 약10%를 차지하는데 그 가운데서 흑룡강성에 103,346명, 길림성에 28,040명, 료녕성에 약 7만명 있으며 각각 본 성 조선족인구의 20%, 8%, 30%를 차지하고 있다(도표 17을 보라).

민족이론계에서의 일반적 분류법대로하면 민족향인구는 잡거, 산거민족인구의 범위에 속한다. 하지만 조선족의 각도로 고려할때 몇천명, 만여

명이 비교적 집중적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이면 일정한 규모의 집거로 간주할 수 있기때문에 조선족민족향을 특히 조선족의 잡거형식범위에 귀속시켰다.

조선족의 다수는 한족과 뒤섞여 잡거하고 있으며 일부분은 만족, 몽골족과 잡거하고 있지만 잡거하고 있는 조선족의 절대부분은 자체로 부락을 이루고 소면적으로 집거하고 있다. 이러한 부락과 집거지들은 많이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부락을 위주로 하여 상당한 정도의 단일 민족성을 상당한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이를 테면 흑룡강성 조선족인구의 60.76%(262,271명)가 12개 지구, 시의 54개현에서의 499개 조선족민족촌에 분포되어 있다. 이 12개 지구, 시에서의 10개 지구, 시의 조선족민족촌의 조선족인구의 평균비례는 95%를 초과한다(도표 18을 보라). 이 499개 조선족촌가운

〈표 18〉 흑룡강성조선족촌분포

지 역	조선족촌 수량	총 인 구	조선족인구	조선족이 점한비율(%)
할 빈 시	29	20,333	20,039	98.55
치 치 할 시	13	8,479	8,364	98.64
목 단 강 시	170	102,477	100,304	97.9
가 목 사 시	76	35,518	35,219	99.16
계 서 시	37	25,178	24,402	96.9
학 강 시	2	2,294	2,182	95.1
쌍 압 산 시	2	506	506	100
이 춘 시	11	5,661	5,545	97.95
칠 태 하 시	15	7,349	7,334	99.8
송화강지구	116	44,374	44,052	99.27
수 화 지 구	19	13,018	12,142	93.23
흑 하 지 구	9	2,472	2,177	88.07

자료 : <<흑룡강성 조선민족>> 및 1989년 10월 필자의 현지조사자료에 의해 작성.

데서 조선족인구의 비례가 100%인 389개 촌이 조선족촌 총수의 77.95%를 점하고 조선족인구의 비례가 90-99%인 86개 촌이 조선족촌 총수의

77.95%를 점하고 조선족인구의 비례가 90-99%인 86개 촌이 조선족촌 총수의 17.23%를 점하며 이 양자의 합계가 약 조선족촌 총수의 95%를 점한다(도표 19를 보라). 조선족촌가운데서 조선족의 비례가 제일 작은 흑하지구 손오현 연강향 동광촌도 50.84%를 점하고 있다. 일부현과 시에서, 이

〈표 19〉 흑룡강성 조선족촌의 조선족 비례통계

지 역	마을수	조선족이 100%로 점한수	99-98%	97-95%	94-90%	89-80%	80%이하
할빈시	29	19	5	2	3	—	—
치치할시	13	7	3	1	2	—	—
목단강시	176	129	15	6	12	11	3
가목사시	70	65	2	1	1	1	—
계서시	37	33	2	1	1	—	—
학강시	2	—	1	—	1	—	—
쌍압산시	2	2	—	—	—	—	—
이춘시	11	6	—	2	2	1	—
칠태하시	15	14	—	1	—	—	—
송화강지구	116	102	7	2	3	2	—
수화지구	19	8	4	—	4	2	1
흑하지구	9	4	—	2	—	—	3
루 계	499	389	39	18	29	17	7
점한%	100	77.95	7.81	3.60	5.81	3.40	1.40

자료: <<흑룡강 조선민족>>의 자료에 의해 작성.

를 떼면 할빈시 교구(15개), 목단강시 교구(12개), 분산현(31개), 녕안현(43개), 계서시 교구(9개), 벌리현(14개), 상지현(32개), 오상현(47개)에 서의 전부의 조선족촌은 조선족인구의 비례가 전부 100%이다.

조선족부락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50-120호(200-499명)인 마을이 제일 많고 120-200호(500-799명)인 마을이 두번째로 많고 200-500호인

마을도 적지 않다. 흑룡강성 조선족촌의 정황이 이 점을 설명한다(도표 20을 보라).

〈표 20〉 흑룡강성 조선족촌 규모의 통계(개)

루 계	200명 이하	200-4 99명	500-7 99명	800-9 99명	1000-1 999명	2000-2 999명	3000명 이상
499	48	204	132	54	56	4	1

자료 : <<흑룡강 조선민족>>의 자료에 의해 작성.

산거하는 조선족이란 주요하게 조선족자치구역, 조선족향, 조선족촌을 내놓은 각 성시, 농촌에 분산되어 있는 조선족인구를 가리킨다. 이를 보면 동북3성의 대부분과 내몽골, 하북의 개별적 지역을 제외한 근 800개의 현과 시에 거주하고 있는 1만여명이 이 범위에 속한다. 그들이 조선족 총인구중에서 점한 비례는 1%가 못된다. 산거의 규모는 1명, 2-5명인 것이 많다. 1982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각 현, 시에 오직 1명의 조선족이 있는 현과 시가 245개 있고 2-5명이 있는 것이 268개 현과 시가 있고 그 양자를 합치면 조선족 산거지 현, 시의 60%이상을 점한다. 이 부분의 인구는 주로 건국후에 사업터가 조동되고, 학교졸업배치에 의해 그 지역들에 분산된 것이다.

③ 지리위치로 놓고보면 조선족은 주로 북경-할빈철도, 할빈-가목사철도의 이남, 이동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인구는 총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죄다 북위선 50° 이내에 있으며 기후적으로 벼농사에 알맞은 곳이다. 비록 조선족들이 일찍 1933년에 이미 북위선 50°15'인 흑룡강연안의 애취일대에서 벼재배 실험에 성공하였었지만 지금은 조선족촌이 북위선 50°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것이 한개도 없다. 지금 제일 북쪽에 있는 조선족촌은 흑룡강성 손오현 연강향 동광촌(북위선이 약 49.5°임)이고 제일 동쪽에 있는 조선족촌은 흑룡강성 무원현 조길향 영강, 동방조선족촌이다.

④ 조선족은 주로 크고작은 강하천류역(江河流域), 평원이나 비교적 평탄한 지역과 철도연선에 분포되어 있다. 이를 테면 흑룡강성의 조선족은 대부분 목단강(牡丹江), 송화강(松花江), 목릉하(穆稜河), 해랑하(海狼河), 마연하(嗎琨河), 수분하(授芬河), 탕왕하(湯旺河), 왜궁하(倭肯河), 라림하(林河), 눈강(嫩江) 등 강하천 유역 양안에 분포되어 있으며 삼강평원(三江平原), 흥개호평원(興凱湖平原), 송녕평원(松嫩平原)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것은 조선족의 전통적 벼재배업과 관계된다는 것이 뚜렷하다. 물론, 산구나 반산구에, 이를 테면 연변의 일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도 일부 있다.

조선족은 철도연선과 철도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교통의 편리를 고려한 원인이며 아마 조선족이 이주하여 올때 먼저 교통연선에 발을 붙인것과도 관계될 것이다. 불완전통제에 근거하면 흑룡강성에서의 조선족이 거주하고있는 30개 현은 철도연선에 있으며 할빈-가목사철도선에서의 할빈, 수화, 철령, 탕원, 가목사이며 할빈-수분하철도연선에서의 아성, 상지, 해림, 목단강이며 목단강-도문철도연선에서의 녕안이며 라림-할빈철도선에서의 오상 등 현, 시들은 모두 조선족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길림성에서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는 23개 현, 시는 철도연선에 있으며 장춘-도문철도연선에서의 장춘, 길림, 교하, 연길, 도문 5개 시는 조선족이 비교적 많은 지역이다. 료녕성에서 조선족이 비교적 집중되어 있는 철령, 심양, 무순, 본계, 단동 등 현, 시는 모두 철도연선에 있다.

⑤ 조선족은 농촌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수가 다수를 점한다. 장기적으로 다수의 조선족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 최근 몇년사이에 조선족의 도시인구는 어느 정도 증가되었다. 1982년 제3차 전면적인 인구조사할때 연변조선족에서의 도시인구는 연변 조선족인구중의 반수를 초과하였다. 1986년 료녕 조선족에서의 도시인구는 124,049명으로 료녕 조선족인구중의 62.57%를 점하였다. 그러나 이 두 지역의 도시인구중에는

도시교구의 농촌인구도 망라된다. 비교적 확실한 총계에 의하면 1982년 도시에 거주하고있는 흑룡강성의 조선족인구는 12여만명으로 본성 조선족인구의 28%를 점하며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成市教區를 망라하여)는 31명으로 본성 조선족인구의 72%를 차지한다. 다방면의 총계수치에 근거하여 짐작한다면 목전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인구는 약 총인구의 55~60%를 차지하고 있다.

그외에 조선족의 이주력사의 원인으로 하여 흑룡강성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중에서 본적지가 조선남부인것이 약반수를 점하고 있고 연변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중에서 본적지가 조선 북부인것이 반대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중국 조선족 분포상에서의 특징으로 되고 있다.

요컨대 조선족은 인구와 지역 분포상에서 분산적이면서도 집중적이고 한족과 서로 뒤섞여 살면서도 자기 단독적인 마을에 모여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분산적이라는 것은 첫째로 조선족은 기본상에서 주거, 산거민족에 속하며 주거, 산거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반수이상을 점하며 둘째로 조선족은 한족이나 다른 소수민족과 서로 뒤섞여 잡거하고 있으며 셋째로 조선족은 전국 29개 성, 시, 자치구의 1002개 현과 시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513개현과 시에는 오직 1~5명의 조선족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른바 집중적이라는 것은 첫째로 동북3성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연변이란 이 조선족 민족자치구역내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북3성 조선족의 분포는 연변을 핵심으로 하는 분포연접층차를 이루었고 탐벳상태의 분포적 태세를 이루었으며 둘째로 조선족은 일반적으로 50~100호씩 부락을 단위로하여 주거하고 있으며 순 조선족이나 조선족인구가 95%이상을 점하는 조선족마을이 조선족이 거주하고있는 부락중에서 다수를 점하며 셋째로 북경-합빈철도, 할빈-가목사철도의 이남, 이동의 지역에 비교적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강하천류역, 철도연선에서의 수원이 충족하고 유역, 철도연선에서의 수원이 충족하고 토질이 비옥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비교적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조선족의 이러한 인구와 지역의 분포상태는 그 자체

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조선족의 분포가 그 자체의 발전에 대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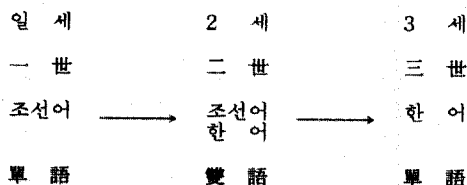
민족인구의 지금의 분포상황은 과거의 민족발전에 의해 결정된것이며 지금과 장래의 민족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 조선족은 전국의 반수좌우의 현과 시에 분산되어 있고 동북3성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많이는 자기단독으로 부락을 가지고 한족지역에 잡거하고 있다. 뿐더러 사회의 발전에 따라 조선족인구는 날로 더 많이 전국 각지에 분산되고 있다. 이것은 조선족인구분포의 하나의 특징이다. 조선족의 상대적 집중은 조선민족의 문화를 보존하는데 유리하고 부동한 지역에 있는 조선족들이 서로 연계를 맺고 민족의 집체감과 응집력을 강화하는데 유리하다. 다수의 조선족인구는 모두 본 민족의 언어를 장악하고있고 민족심리소질이 비교적 농후(濃厚)한데 이것이 바로 하나의 뚜렷한 실례다. 하지만 거주형식은 민족의 거래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자기 단독으로 마음을 가지고 집거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의 조선족들로 하여금 쌍어능력(雙語能力) (한어의 사용능력이 낮다)이 낮고 사회교류성이 부족하고 사회 교섭능력과 영향력이 약하다. 이 면에서의 부족점은 개혁, 개방의 10여년사이에 뚜렷이 표현되고 심각히 감촉된다. 조선족 농민이 향, 진기업소를 발전시키고 상품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곤란을 봉착하고 있는것은 상술한 부족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사회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조선족은 한족속에 생활하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이용하며 자체의 쌍어능력, 교섭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조선족이 다민족이면서도 한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선진적 행렬에 들어선데 있어서 갖추지 않으면 안 될 바이다.

— 조선족은 대부분이 강하천류역에 분포되어 벼농사를 짓고 있으며 특히 흑룡강, 료녕 그리고 길림성의 일부 지역은 더구나 그러하다. 조선족은

이 지역에 이주한 시간이 비교적 늦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그들이 개간한 수전과 부락 위에는 기타 토지들이 없다. 그래서 조선족은 경작지가 제한되어 있고 관할 지역이 제한되어 있으며 자원이 결핍하여 다작경리를 발전시키는데 곤란이 있다. 이것은 조선족의 발전에 불리한 요소이다. 때문에 조선족은 웅당 당지의 자연적자원에 의존되지 않는 기술성적 다작경리와 향, 진기업소를 발전시키는데 힘써야 한다.

— 도시에 흩어져 거주하고있는 조선족은 자녀들에 대한 민족전통, 민족문화(주로는 민족 언어와 문자)의 교육에서 엄중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도시에 살고있는 조선족의 3세(三世)중에서 적지않은 사람들이 조선어문을 모르거나 능통치 않고 또 조선적문화전통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조선어문 장악상에서 1세(一世)와는 3세(三世)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추세인 것 같다(다음도표를 보라).



이것은 조선민족문화의 계승 문제이면서 민족의식(民族意識)의 보류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각 민족의 민족발전의식이 날마다 뚜렷이 증강되는 추세하에서 우리는 마땅히 조선민족 언어와 문자에 대한 과외교육이며 도시 조선족의 문화활동을 강화하는 형식으로써 이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것은 중국의 조선민족의 미래의 건전한 발전에 관계되는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므로 마땅히 충분한 중시를 돌려야 한다.